

만행결사, 문경새재 이화령 백두대간 넘다

만행결사 자비순례단 충북 진입
고도 548m 이화령 힘차게 넘어
10월20일 현재 350km 순례길
정세균 총리 “만행결사에 감사”



자비순례단은 걸으면서 화두를 들고 걸으면서 대승의 가르침을 생각한다. 한 스님은 “부처님께서 길에서 보여주신 가르침을 지금 이곳에서 깨닫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과 불교중흥을 위해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를 향해 도보 순례중인 자비순례단이 10월17일 백두대간 본줄기인 이화령을 넘었다. 이 구간은 경북 문경시와 충북 괴산군을 이어주는 고개로, 영남과 중부지방을 연결하는 지역이자 한강과 낙동강의 분수령이다. 10월7일 총 500km에 달하는 대장정을 시작한 사부대중은 순례 11일째를 맞은 이날 경북을 벗어나 충북 지역을 밟아 들었다. 총 500km에 달하는 구간 가운데 약 270km를 걸어 절반을 넘어섰다.

문경새재 이화령은 해발 548m 봉우리로, 순례단 전체 코스 가운데 난코스 구간이다. 새벽 3시50분경, 본격적인 행진을 앞두고 만행결사 발원문을 낭독하는 결사대중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흘렀다. 비구니 스님들을 선두로 비구, 우바새, 우바이, 일일참가자 순으로 길을 나섰다.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이라는 염원을 안고 길을 나선 사부대중은 캄캄한 새벽을 뚫고 약 세 시간을 부지런히 걸어, 문경새재 입구에 다다랐다. 과일과 달걀, 치즈로 간단한 아침 공양을 마치고 오전 8시 이화령 고개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병풍을 펼쳐놓은 듯 한 산은 가을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쾌정한 하늘과 어울려 그림 같은 풍경을 선물했

다. 여기에 스님과 재가 불자들의 정열한 행렬이 더해지면서 장관을 이뤘다. 전 사부대중이 모여 함께하는 수행은 날이 갈수록 힘을 더하고 있었다. 약 5km에 달하는 구불구불 가파른 오르막도 도반들이 함께하니 큰 어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얼굴은 금세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묵직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두 시간 여를 힘겹게 걸은 끝에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다. 100여명에 달하는 9교구본사 신도회 불자들의 환대로 쏟아졌다.

이화령 정상에서 사부대중은 이날 순례의 회향식을 갖고 그간 물심양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화사와 사찰 신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은 총 31km, 4만 2000보를 걸었다. 순례가 끝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화통화를 통해 회주 자승스님의 안부를 묻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걷고 있는 자비순례단에 감사 인사를 했다. 이에 회주 스님은 국무총리에게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원하며 걷고 있다. 건강하게 순례

잘 마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누구보다 뜨겁게 동안거를 나고 이번 순례에도 동참한 심우스님은 “사부대중이 한 목표를 향해 발걸음 맞춰 가는 게 대단하고, 같이 정진하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며 “걸으면서 대승의 가르침을 많이 생각한다. 부처님께서 자비심이 없었다면 정사에서 신도들의 공양 받고 설법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길에서 보여주신 가르침을 지금 이곳에서 깨닫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두에서 순례단을 이끈 유승스님은 “회주 스님께서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이라는 가치를 내 건 순간이 큰 원(願)에 대한 씨앗이 뿌려졌다. 그렇다면 싹을 틔우고 잘 키워나가려면 결사에 동참하는 사부대중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순례 길에 있는 동안 불교중흥을 위해 ‘나는 어떤 역할을 할지’를 화두로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40여명에 달하는 일일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이수진 더

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일부 기독교계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 재확산에 영향을 미쳐,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 것과 달리 불교계가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해줘 국민을 대표해 감사인사 드린다”고 말했다. 무상스님과 40년 인연으로 스님을 응원하기 위해 참가한 김선정(60)씨도 “무상스님이 힘차게 걷고 계셔서 기쁘다. 스님들을 보자마자 보여주기가 아니라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며 “그동안 살면서 히말라야와 사막도 거침없이 다녔는데 생각보다 힘들다. 아름다운 가을 곡식과 사과가 익어가는 땅을 밟으며 스님들과 함께 순례해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순례단은 10월 18일 괴산을 지나 충주에 도착했으며, 19일은 최장거리인 약 36km를 걸었다. 10월 20일도 새벽 4시부터 정진을 시작해 오전 10시 30분께 아양장에 도착했다. 현재까지 약 350km를 걸었다. 이제 긴 여정도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괴산·충주=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자비순례단에 우리도 있어요!



김정도(사진 왼쪽)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고 이재완 동국대 대학원 총무.

“불교중흥 동국발전 코로나 종식 발원”

김정도·이재완씨 동국대 도반

20대의 열정과 패기로 자비순례에 동참하고 있는 청년 불자들이 있다. 김정도 총립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고 이재완 총무가 그 주인공. 두 학생은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는 동안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거운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안내요원을 도맡는 등 솔선수범 보살행으로 순례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루 일정을 끝내고 나면 땀으로 범벅된 모습임에도 늘 미소를 잃지 않는 김 회장은 “총립대학을 대표해 왼쪽 팔에는 동국 발전, 다른 한쪽은 코로나 극복과 불교중흥을 발원하며 순례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전 일정을 무사히 회향

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 불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이재완 총학생회 총무는 김 회장 권유로 함께 길을 나서게 됐다.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안내요원이 필요하다는 실무진 요청에 봉사를 맡아, 선두와 후미를 오가며 길 안내를 하고 있다. 이번 순례에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묻자 이 씨는 ‘묵안’을 꼽았다. 묵안에 경험하기 힘든 체험이다. 입을 닫고 길을 걸어보니 “스스로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씨는 스님들이 걷는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 또한 정진 원력으로 김 회장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김명숙 동국대 일산병원 수간호사는 병원 30년을 근속을 회향하는 시점에서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환희로운 마음으로 동참한다고 말했다.

“자나깨나 결사대중 돌보는 약사보살”

김명숙 동대병원 수간호사

김명숙 동국대 일산병원 김진운영림 수간호사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동참한 사부대중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김명숙 간호사는 텐트에서 생활하며 이른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순례대중의 고통을 살펴준다.

김 간호사는 얼마 전 30주년 근속패를 받았다. 불교병원 직원으로서 동국대 의료원에서 30년 근속하고, 11월이면 만 31년이 된다고 한다. “30주년을 회향하는 시점에서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환희로운 마음을 내어 동참하고 있다. 출발 전에는 21일 동안 혼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순례단을 살펴야 한다는 부담이 컸지만 한나씩 준비하면서 마음이 점점 정리되는 기쁨을 느꼈다”고 생각을 풀었다.

공주 순례 때 동참했던 경험을 토대

로, 김 간호사는 다양한 의약품을 챙겨왔다. 약이나 진료재료가 많아서 응급차에 다 싣지 못할 정도이다. “동국대 일산병원 앞 경원약국에서 의약품을 상당수 보시해줬다. 약국장이 독실한 불자라서 선원에 상비약 보시를 많이 하는데, 이번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한다. 의약품이 충분한 덕분에 김 간호사는 치료는 물론 예방적 처치도 해주고 있다. 혼자서 하루평균 40명을 돌보는데, 꼭두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밀려오는 환자들만 많아 점심·저녁공양 때를 놓치기도 했다.

김 간호사는 마지막으로 발원했다. “스님들이 건강하게 순례하고, 코로나 19 걱정 없이 자비순례를 회향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상주=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새도 날다 쉬어가는 문경새재...”

상월선원 만행결사 불교중흥·국난극복 자비순례단은 결사 11일째인 10월17일 문경새재 이화령을 넘어 충북 괴산에 발을 들었다. 이화령은 높이 548m로 괴산군 연풍면과 경북 문경시 문경읍 사이의 고개로 나는 새도 쉬어간다는 새재가 있는 조령산과 연결된 고개다. 순례단은 이날 부지런히 발을 움직여 약 두 시간 만에 고개를 넘었다. 김형주 기자

“시골길 농로 자전거도로...안전 통과하여 봉은사까지 회향”

지우스님 순례단 진행팀장

하루 6~7시간을 걷고 있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 일정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날 코스를 향해 답사에 나서는 이들이 있다. 순례 길에 결코 없어선 안 될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자비순례단 진행팀’이다. 진행팀은 그 다음날 코스를 확정하기 앞서 최종점검을 위한 답사를 하고 있다.

대구 보현사 주지 지우스님이 진행1팀장을 맡아 선두에서 길을 안내한다. 스님과 함께 운승현 동국대 법인사무처 과장, 나인성 대승투어 이사, 김대철 부장이 팀원으로 참여해 자전거를 타고 매일 사전 답사 길에 오른다.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봉은사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선두에서 행렬을 이끌고, 그 다음날 걸을 길을 맨 먼저 열어간다. 좁은 시골길과 농로, 자전거 도로, 일반도로를 무사히 통과해 그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자전거로 왕복 3~4시간을 달려 답사를 마치고 돌아와 회의까지 끝내면, 잠깐의 저녁이 되어서야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다.

진행1팀장 지우스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비순례단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사고 없이 서울 봉은사까지 가도록 돕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얼마 전 자전거 앞 타이어가 갑자기 터져 위험천만한 순간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 더욱 긴장의 고삐를 조인다.



자비순례단에 앞서 사전답사를 위해 길을 떠나는 진행팀장 지우스님과 팀원들 모습.

지우스님은 “순례 힘으로 다들 맑은 정신으로 생활하면 국난도 극복될 수 있다”며 “순례를 통해 고통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고통을 없애는 길인 여덟 가지 바른 길(팔정도)을 실천해 나간다면 국난은 극복되리라 믿는다. 그것이 곧 불교중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염원을 안고 스님은 매일 자전거에 오른다. 진행팀원 김대철 씨도 “스님 덕분에 마의 삼각지대를 매년 잘 통과하고 있다”며 “몸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사부대중의 의미 있는 결사에 함께하고 있어 행복하다. 안전에 최대한 힘써 자비순례가 무탈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만행결사 원력으로 2022년 금메달”

정해림 국제스노보드 선수

자비순례단에는 ‘한국 여자 스노보드’의 간판 국가대표 정해림 선수도 참여하고 있다. 얼마 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일일참가자로 순례단을 방문했을 때,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라는 덕담을 전하기도 했다.

정 선수에게 불교는 ‘마음의 고향’이다. 양평 용문사에서 인연을 맺은 호산스님이 이번 순례를 권했을 때 망설임 없이 따라나설 정도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

정 선수는 호산스님이 수곡사에서 상월 묵인템플스테이를 열었을 때도 참여했다. 2박3일간 묵인과 하루 한 기 공양, 6시간 정진 등 청규를 철저히 실천하며 정진했다. 정 선수는 “아홉스님께서 3개월 동안 정진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잘 모르다가, 직접 해보니 얼마나 힘든 수행을 하셨는지 알게 됐다”고 전했다



불교인연으로 운동선수로서 슬럼프를 극복한 정해림 선수는 이번 자비순례 원력으로 새로운 용기와 기운을 얻었다고 말했다.

다. 정 선수는 “호산스님을 만나 명상법을 배우면서 새로운 용기와 기운을 얻었다”며 무사히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정 선수는 “코로나로 주요 경기가 연기되면서 개인훈련에 한계가 있는 시점에 순례를 하게 됐다”며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단단히 무장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